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새해 첫 미사 “여성 폭력 멈춰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미사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여성을 향한 폭력을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자 제55회 세계 평화의 날인 1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신년 미사를 집전했다. 올해 첫 강론의 주제는 여성이다. 그는 “여성에게 얼마나 많은 폭력이 가해지는가. (이미) 충분하다.”며 “여성을 해치는 것은 여성에게서 인간성을 취하신 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의 징표로 시작한다.”며 “어머니들은 난제와 불일치를 극복하고 평화를 심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재생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어머니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교황은 남성 중심적인 가톨릭 교회의 구조를 바꾸려는 의지도 보여왔다. 그는 최근 바티칸시국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사무총장,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시노드·Synod) 사무국장 등 고위직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장을 등용했다.

한편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한 이날 정오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을 굽어보는 사도궁 집무실 창을 열고 집례한 삼종기도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교황은 “평화는 주님의 선물이자 인류 모두가 혼신할 때 주어지는 과실”이라며 “그것은 가장 빈곤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정의를 증진할 때, 증오의 불을 끄는 용서의 용기를 가질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가르침과 교육은 희망, 번영, 진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응집력 있는 시민사회 토대”라며 “정부가 교육과 무기에 사용되는 각각의 공적 자금의 비율을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을 개발할 때”라고 강조했다.

不落大小不着有 一二積成無峰塔
無高塔高不可量 能覆法界嚴淨土
크고 작은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음
에도 집착하지 아니하여
한 개 두 개 돌을 쌓아 무봉탑(無峰
塔)을 이를진대는
한없이 높은 탑의 높이를 측량하여
알 수가 없으나
능히 온 천지를 덮어 정토를 장엄하
도다.

아무리 높은 성이나 탑도 조그마한 돌을 쌓고 또 쌓으면 결국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착한 일 하나 하 고 둘 하고 차츰차츰 하다 보면 결국 부처를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탁발을 나가셨을 때 일입니다. 탁발하기 위해 아침에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젊은 부인이 얼른 밥을 한 그릇 가지고 나와서 부처님 바루에 넣어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축원해 주시기를, “이 밥의 열 배 천 배가 그 공덕이 되어서 복을 받을지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할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부인의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허무한 소리라. 그 말씀이 믿기지 않아 부처님을 따라 가서, “부처님, 방금 부처님께서는 제 아내가 시주한 그것이 어떻게 수 없는 공덕이 되고 씨앗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가 된다고 하십니까?”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가 커서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 저 나무는 본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비 실천의 새해



“그거야 본래 저 나무의 씨앗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저 나무가 거자씨만큼 작은 하나님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 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수 많은 열매를 맺듯이 부인의 시주공덕은 이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작은 공덕 하나를 지었지만 그 씨앗이 열매가 될 때, 처음 뿐만 씨앗과 수확하는 열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도들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마땅히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저버리고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만 생각하고 형이상학적인 신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행 과정의 씨앗이나 공덕을 지어가고 가꾸는 것보다 열매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지양해야 할 자세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실천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 이지, 절 꾸벅꾸벅 세 번 하고 돈 천 원·만 원 부처님 앞에 갖다 놓았다고 다 공덕인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동과 업을 정려히 가다듬고 매사에 불사를 짓는 심정으로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인연에 따라 어떤 운명을 타고 납니다만 그 운명이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짓는 복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행불자들은 절에 와서나 평소 일상에서 항상 복 짓는 생활과 선행을 하는 데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 전생에 지은 어떤 인연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작은 나를 넘어서고 작은 나의 이기기를 넘어서는 대승적 이해와 대승적 삶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꿈과 희망이 충만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복된 삶이 이어지시길 일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회주 스님 -

라인댄스 초, 중급 반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